

공동체 소식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구원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천주께로부터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신 성 안드레아여순례의 길에 오른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순교정신을 본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천주께 빌어주소서.

■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일’ 입니다.

- 매일미사 책 44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7/4: 성 토마스 사도, 7/4: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7/5: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7/6: 성녀 마리아 고레티 동정 순교자

■ 지난주일 영명축일 애찬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7월 맨하탄,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 본당 ‘재무위원’ 을 임명합니다.

- 강승석 도미니코, 김대연 요셉, 전용진 라우렌시오 세 분을 재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사랑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고유한 인식 형태를 이해하고, 그것이 지닌 설득력과 우리 발걸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능력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사랑과 결합되어 있기에, 사랑 자체가 빛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식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신앙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빛」 26항 | 그림 임의준 신부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287 (1, 2)	212	160	287 (4, 5)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정예진 한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박정자, 한순례, 김경돌, 박옥희
차 주	김시연, 김말자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영진 라파엘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6/25	63명	396달러	1,650달러
김동술, 김대연, 김병철, 김태선, 박동희 (총 5세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7월 2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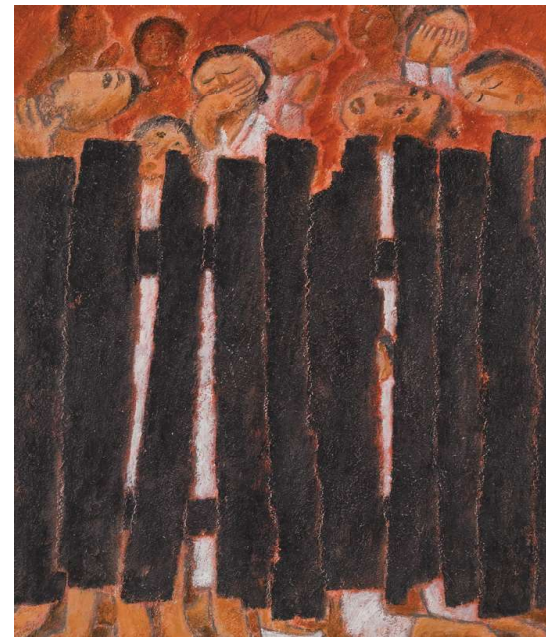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고귀한 첫 번째 사제가 순결한 피를 흘린 한국 교회는, 순교신앙을 이어 오며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온갖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다 가신 신앙 선조들의 후손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 할 것이다.” (마태 10,18)

“교우들 보아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욕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설워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성 김대건 사제 옥중서한에서」 그림 김옥순 수녀

제 1 독 서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8-22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화 답 송 :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주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주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2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한국교회는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순교의 월계관을 씌워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신부님의 전 구로 한국교회가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신부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누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오늘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의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을 뿐만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마태 10,17)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의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 10,21)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증언해야 합니다.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것도 이런 제자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부님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치신 순교자들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들의 피로 양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목숨으로 증언하신 신앙 선조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종종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배교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마태 10,19).

주님의 제자로 충실히 살고 있다면, 또 주님께서 쓰신 자 하신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하시어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며, 말을 하고 증언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도구로 충실히 모든 일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주셨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이기고 기꺼이 순교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1) 이 말씀은 이미 산상설교에서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2)

이렇게 보니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현세의 삶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삶의 의미를 위해, 더 큰 행복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세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로마 5,1-5)

사실, 순교를 향한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교회의 역사에 등장한 무수한 성인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안드레아 신부님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안드레아 신부님처럼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들어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순교의 피는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충남 솔미에서 아버지 김제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 신부님의 아버지는 본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집안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열여섯 살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1836년 최양업 토마스외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타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드디어 김대건 안드레아는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님은 선교하시다가 1846년 6월에 체포되어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오로지 이 땅에 천주교의 전교를 위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26세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봉헌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교회의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선각자였다고그분이 목숨을 지켜 증거한 신앙은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는 선열들의 순교의 피로써 시작되고 발전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들의 은덕으로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가르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마태 10,19) 희생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자괴감

그리 어렵게 공부하고 고생하다 귀국하여 뜻도 펴지 못하고 이리 허무하게 가면 ‘내가 이 고생을 왜 했나 자괴감이 들지 않소?’

‘아니오. 사실 난 그러려고 이 모든 고생을 했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의 원하심을 따라왔소.’

각자마다 살아가며 바라는 것이 있을진데 그것도 포기한 이를 진정 성인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마음이 겹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22)